

	논 평	충남도당
2019년 10월 10일(목)	대변인 : 김 연(010-3355-4074) 담 당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9, 신부더샵 3층 / 041-569-1500		

충남 찾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생행보를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목) 충남도청을 비롯해 아산시와 서산시 일원 등을 돌아보며 ‘전국경제투어’ 11번째 일정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열린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서산에서 열린 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는 혁신도시 지정과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석문산단-대산항 인입철도 건설 등 6건의 주요현안에 대한 건의를 듣고, 충남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해양신산업 발전전략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충남은 환황해 해양경제권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정부는 바다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충남의 의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어기구)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생행보를 크게 환영한다.

문 대통령의 오늘 일정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국가균형발전’의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에 기꺼이 동참하여 도내 주요현안을 해결하고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